

소설 당선작

씩

명태는 먹태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접시 위에 잘게 찢어진 생선의 살점들을 보며 장 부장은 확신했다. 심해를 헤엄치던 생선이 값싼 마른안주가 되고 싶었을 리 없다. 하지만 식품으로 전략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면 심해의 기억은 잊어야 한다. 야망을 품을 거라면 차라리 질 좋은 황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굳은 지느러미를 움직이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현실 감각이 없는 먹태는 공동체에도 해를 끼친다. 함께 노끈으로 켜 다른 생선들에게 애꿎은 희망이나 서글픈 심어주기 때문이다.

말이 많은 김 과장이 퇴사한 이 대리의 근황을 떠벌리고 있었다. 이 대리가 작업실 커피머신을 오픈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기계적으로 먹태 구이를 씹던 장 부장의 입술이 동작을 멈췄다. 입안에 든 생선의 거칠고 마른 살점이 쓰게 느껴졌다. 소주를 한 모금 삼켜내는 것과 동시에 장 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고작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낙오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야!

이 대리의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던 직원들은 조용히 핸드폰을 끄고 입을 다물었다. 오래된 민속점의 길쭉한 테이블들 사이에 두고 열댓 명의 직원들이 둘러앉아 있다. 장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직원들을 못마땅한 눈으로 훑었다. 희긋하고 버서대는 머리털을 가진 장 부장과는 달리 부루퉁한 얼굴들 위로 쏟아지는 그들의 검은 머리털에서 아직 새것 같은 윤기가 흘렀다. 테이블 위에는 부스럭거리고 남은 먹태 구이와 비계가 떠다니는 돼지 찌개, 계란말이 몇 점과 음식물이 묻은 나무젓가락들이 섞여 있었다. 법안카드가 아닌 장 부장의 사비로 내는 술상은 늘 이렇게 비루했다. 신입사원이 누린내 나는 돼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장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맥주만 홀쭉했다. 회식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이는 장 부장뿐이었으니, 흥이 나서 술을 실컷 들이붓고 취한 이도 장 부장밖에 없었다.

장 부장은 이 대리의 소식을 듣자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퇴사하기 전 이 대리는 고생이라고는 모르는 말간 눈으로 눈물을 질질 흘렸다. 남들 다 하는 야근이, 남들 다 듣는 군소리가 그리 힘들다며 없는 소리를 하는 요즘 애들은 도태되어야 마땅하다. 장 부장은 술잔에 반쯤 남아있는 소주를 입안에 털어 넣었다. 온몸에 열이 올랐다. 이 대리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다행이라며 말을 전하는 김 과장의 의중마저 의심스러웠다.

내가 그 나이였을 때는 밤새 야근하고도 선배들이 새벽에 한잔하러 가자고 하면 거절을 못 했어. 새벽 내 시에 술자리가 파하면 회의실에서 새우잠을 자곤 했지. 거기에 비하면 요즘은 직원들 개인 시간도 존중해주고 자유롭지 않나? 이 대리는 아직 젊어서 진짜 고생스러운 게 무엇인지 잘 몰라. 그런 조그만 난관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

장 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혼계를 늘어놓았다. 술집의 노란 조명이 사람들의 얼굴 위로 덧씌워졌지만, 흥분과 취기로 달아오른 장 부장의 혈색을 감추기에는 부족했다. 장 부장은 오늘 회식의 목적이 있는 채 격렷했다. 말을 꺼냈던 김 과장이 죄지는 얼굴로 어깨를 움츠렸고 나머지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직원들의 얼굴에 묘한 비소가 흘렀지만, 술이 얼큰하게 취한 장 부장은 알아채리지 못했다.

그래도, 이 대리 빈자리가 왔는데 친회 씨가 성실하게 해주니 다행입니다.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윤 차장이 화제를 돌렸다. 장 부장은 게슴츠레 풀린 눈으로 제 술잔에 술을 채우고 있는 손을 바라보았다. 남자답지 않게 굳은살 하나 없는 뽀얀 손이었다. 고개를 들자 친한하게 씩 웃는 신입사원과 눈이 마주쳤다. 성실하긴 뭐가 성실해! 하고 내지르고 싶은 장 부장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윤 차장은 신입사원의 칭찬을 바쁘게 늘어놓았다.

친회 씨야말로 요즘 애들답지 않게 씩씩하고 성실하죠. 장 부장은 입을 꼭 다물었다. 윤 차장의 말이 맞긴 했다. 신입사원인 김찬희는 성실하게 근무했고, 야근과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 부장은 처음부터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무리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아도, 후회 없이 흔들리나도, 그는 도무지 기죽는 법이 없었다. 언젠가 씩수가 노란 늑대라는 편찬을 주었더니, 김찬희는 생글 생글 웃으며 맞받아쳤다.

햇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부장님. 이 주 동안 야근을 했더니 얼굴이 누렇게 됐어요.

응석과 애교가 섞인 신입사원의 말에 사무실의 직원들은 킬킬대며 웃었다. 어디서 말대꾸냐고 호통칠 타이밍을 놓친 장 부장은 짜증을 억누르고 제 자리로 돌아왔다. 스물일곱 살인 김찬희의 얼굴은



그림=이형우

주눅이 배어있던 20년 전 장 부장의 얼굴과 너무 달랐다. 장 부장은 그것이 아니꼬웠다. 하지만 윤 차장이 신입사원을 추켜세우고 신입사원이 더 열심히 하겠다며 씩씩하게 구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꺾 수는 없었다. 장 부장은 신입사원의 잔에 소주를 넘치게 채워주며 잠잠하게 말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아까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다 자네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레도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자네 나이일 적에는 말이야. 한 달에 80만 원을 받으면서 일했어.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았지. 나는, 그때 나는, 내가 당신들처럼 새파랗게 젊었을 때는 말이야.

장 부장은 알코올에 찌들어 감각이 무뎠던 혀바닥을 열심히 놀렸다. 직원들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자꾸만 터져 나오려는 하품을 참았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가졌고, 제 시력이 가장 흑흑한 것이며, 제 깨달음이 가장 값진 것이라 믿는 사람의 이야기는 늘 지루하다. 달팽이관에 새겨진 만큼 듣고 또 들었던 장 부장의 조언들은 싸구려 돼지 찌개 냄새가 났다.

*

회식 때마다 술에 취한 장 부장이 늘어놓는 그의 지난한 인생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외아들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응석반이로 키우지 않았어.

장 부장은 어머니에게서 처음 체념을 배웠다. 서른 살에 과부가 된 어머니가 홀몸으로 외아들인 장 부장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도 모자 사이의 돈독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여인이 그 아들에게 베풀었을 사랑은 분명 헌신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가끔 장 부장은 의구심이 들었다. 장 부장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의 얼굴보다 어머니의 등이 더 많았다. 말린 찢어질 듯 작고 아픈 어머니의 구부정한 등. 손을 뻗어 희미한 윤기를 더듬어도 쉽게 돌아와 주지 않던 단단한 등이었다. "영준아." 하고 상냥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일도 드물었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등지고 앉아 팔레를 꺼거나, 방바닥을 두거나,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영준은 지친 얼굴로 잠을 청하는 어머니에게 어린 애다운 수다를 늘어놓았다. 선생님께 들었던 칭찬, 소풍날 먹고 싶은 음식, 받아쓰기 성적에 관한 이야기를 떠들었다. 어머니는 꼭 필요한 질문 이외에

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는지, 왜 소풍 날 오실 수 없는지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어린 영준은 듣지 못했다. 영준은 점차 어머니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인생의 모든 굴곡에서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를 얻는 것을 체념하게 되었다. 꼭 닮은 모자는 함께 식사할 때도 아무 말 없이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일에 집중했다. 그래서 할머니의 별난 아들 사랑을 아내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 영준은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영준은 무심한 말투로 그렇게 대꾸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투정 부리지 못하는 아이는 어른스럽다는 칭찬을 받으며 자란다. 그 말은 촉진제가 되어 아이를 좀 더 빨리 어른으로 키운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지하 단칸방은 한때에도 축축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영준은 작고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숙제하고, 밥을 먹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밤이 오기를 기다렸고, 해가 뜨기를 기다

명태는 먹태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접시 위에 잘게 찢어진 생선의 살점들을 보며 장 부장은 확신했다. 심해를 헤엄치던 생선이 값싼 마른안주가 되고 싶었을 리 없다. 하지만 식품으로 전략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면 심해의 기억은 잊어야 한다. 야망을 품을 거라면 차라리 질 좋은 황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굳은 지느러미를 움직이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현실 감각이 없는 먹태는 공동체에도 해를 끼친다. 함께 노끈으로 켜 다른 생선들에게 애꿎은 희망이나 서글픈 심어주기 때문이다.

했다. 기다리고 잡아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천장에 닿아있는 가로로 긴 창문에는 하늘 대신 콘크리트 바닥이 보였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 그 발길에 이는 뿌연 먼지, 구겨진 코카콜라 캔. 그런 보잘것없는 풍경마저 방범창의 창살들이 조각조각 잘라냈다. 나이기 운동화를 신는 친구들 사이에서 낡은 운동화의 뒷굽을 꺾어 신으며 영준은 자신의 욕망을 숨이내고, 자르고, 다듬었다. 노 거머의 특징과 정취를 축소해 인공적으로 배양해낸 본체처럼 영준은 몸집이 작은 어른으로 유년기를 보냈다.

코발이 거뭇해지는 사춘기가 왔을 때도 영준은 또래들처럼 치기 어린 행동을 하지 않는, 아니 할 수 없는 성실한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십대 소년답게 그도 열일곱 살의 봄에 한 번도 바란 적 없는 열병을 앓았다.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 같은 버스를 탔던 여학생

에게 반했지. 매일 아침 버스를 타면 그 얼굴부터 찾았어. 우연히 마주치는 날이면 그날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 애의 꿈을 자주 꾸었던가. 매끄러운 뺨을 쓰다듬고 싶다고 생각했던가. 어느 날 아침,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문을 응시하는 여학생의 옆모습을 보다가 영준은 문득 슬퍼했다. 졸업하면 다니는 볼 수 없겠지. 무슨 용기였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말을 걸어보자. 이름을 물어보자. 영준은 머리 카락을 매만지며 여학생이 앉아있는 자리 앞으로 가서 섰다. 코끝과 손이 새빨갳게 얼어붙는 추운 날이었음에도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잔뜩 긴장한 손을 감추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 넣었을 때, 결면이 닳아서 흐물대는 종이가 축축한 손바닥에 닿았다.

영준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쥐어준 천 원짜리 지폐 한 장. 지폐를 내밀던 필름이 붙어선 손과 마디가 굵은 손가락 끝에 박힌

지 않은 세대라서 명찰을 확인할 수도 없었지.

여학생의 얼굴도 흐려지고 그날의 비참한 심경도 무뎠지만, 영준은 그것이 못내 아쉬웠다. 겨울이 지나고 영준은 대학생이 되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성적보다 낮은 등급의 학교를 지망했다. 배우고 싶은 전공보다는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선택했다. 말을 걸어보자. 이름을 물어보자. 영준은 머리 카락을 매만지며 여학생이 앉아있는 자리 앞으로 가서 섰다. 코끝과 손이 새빨갳게 얼어붙는 추운 날이었음에도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잔뜩 긴장한 손을 감추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 넣었을 때, 결면이 닳아서 흐물대는 종이

가 축축한 손바닥에 닿았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어. 우리는 교복도 입

명태는 먹태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접시 위에 잘게 찢어진 생선의 살점들을 보며 장 부장은 확신했다. 심해를 헤엄치던 생선이 값싼 마른안주가 되고 싶었을 리 없다. 하지만 식품으로 전략한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면 심해의 기억은 잊어야 한다. 야망을 품을 거라면 차라리 질 좋은 황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게 굳은 지느러미를 움직이려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현실 감각이 없는 먹태는 공동체에도 해를 끼친다. 함께 노끈으로 켜 다른 생선들에게 애꿎은 희망이나 서글픈 심어주기 때문이다.

영준은 대학생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 여학생과 함께 소보로빵을 먹는 것을 상상했다. 주머니 안의 지폐를 손끝으로 매만졌다. 찌푸리는 법을 모를 것 같은 여학생의 반듯한 이마가 경멸로 구겨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준비한 모든 단어가 목구멍에서 사그라들었다. 제 곁에 선 남자의 상상을 알 길이 없는 여학생은 표정 없는 얼굴로 창문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영준은 발걸음을 옮겨 여학생 곁을 떠났다. 결국 영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여학생에게 말 한번 걸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IMF 외환위기가 덮쳤다. 대학만 나오면 그러저럭 괜찮은 직장에 근무할 수 있었던 선배들과 달리 영준은 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직장에 입사해야 했다. 동기들이 대학원으로, 유학으로 도피하는 동안 그는 허겁지겁 사회로 뛰어 들었다. 낮은 급여의 중소기업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어. 우리는 교복도 입